외대학보

단기 4293년 8월 22일 발행
제 37 호

발행인 한종원
편집겸인쇄인 주경현
한국외국어대학 발행소 외대학보사
TEL. ⑤6091·6092·6093
·일부 30 환
인쇄소 동아출판사물무국

(허가번호 제99호)

8월의 메모
△ 7일 입 추
△10일 말 복
△15일 광복절
△22일 개 학
△28일 칠 석
△29일 국치일

Sister Paper in Foreign Languages
The Argus

(단기4291. 3. 27. 제3종 우편물인가)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THE PUBLISHING DEPARTMENT OF THE FOREICN LANGUACE COLLEGE OF KOREA

오늘의 정국과 새생활 운동

사설

지난 7.29 선거를 전후하여 활발히 시작된 운동이 새생활운동 이었다. 단체나 회에서 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서도 혁명 이전의 분별없는 자아비판의 생활로 부터 탈피하여 새 정국의 기초를 공고이 할것을 부르짖었다. 그리하여 시내 모 대학에서는 결사대까지 조직하여 지방으로는 계몽대가 떠나고 서울에서는, 사상이 구체화 되어 양담배를 압수하면서 혹은 카바레를 급습하면서 온 국민을 향하여 검소하고 협동적인 생활을 지향하도록 호소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알수가 없을 정도다. 그런인이 어디에 있겠는가 오늘날 이정권이 몰리간 후 국민의 자유의사대로 선거를 실시하여 그동안 주장해오던 정책이 실현될 단계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황(政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자유당 치하에서 무진히 구박을 받던 민국당이다. 그러한 민국당이 갈라져 신파는 신파끼리 구파는 구파끼리 한계가 내리어 마치 자유당치하에서 자유당에 아부하여야만 한몫 할수있던 관습이 조성될 분위기로 흐르고 있어 여전히 국민의 마음은 어수선 한것이다. 한쪽에서는 새 생활 운동을 전개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정신무장을 호소 하건만 다른 한쪽에서는 정반대로 국민 생활을 불안으로 이끄는 격이되고 말았다. 이조(李朝)의 문명을 거울 삼아 정치인은 오직 이성적인 정치에 힘써야 하고 수십년 동안 걸어온 기성인을 대신하여 새 생활 운동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막연히 새 생활을 내세우는 영향보다는 적절 정책으로써 우리국민은 우리 국민끼리 살아 갈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 하고 정치인 모두가 종합적인 의견에 의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길밖에 지금의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 국민전체가 안락할 길은 없는 것이다.

농촌의 문화 수준을 올린다든가 유흥지나 관사의 신축보다도, 산업개발의 진흥을 꾀할수 있는 시책, 환언하여 이른보다, 행동으로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면을 고려해야 할것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학생 또는 지식인층은 국가의 새생활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써 몇년후의 국민 생활이 많은 진보가 있도록 힘써야 한다. 혼잡한 정국의 노예처럼 정치인들은 서로의 대인관계에 골몰하고 내세운 이론의 반도 실천된 것이 없을 정도로 난립된 시국일수록 적들은 노리게 마련이다. 너무나 이상과 동떨어진 현실의 위기를 극복 하기 위하여 학생과 지식인들의 정열만이라도 새생활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국민정신을 무장하여 복지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총궐기할 때가 닥아온것이다.

중, 노, 서 하기무료강좌 성료

8월1일부터 20일까지 강문 고교에서

본대학 중어과, 노어과, 서반아어과에서는 이번 하기방학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열렬한 성원아래 하기무료 강좌를 8월1일부터 20일간에 걸쳐 시내 강문고교에서개최하였다. 그런데 동강좌시간은매일오전9시부터 10시까지이며 각과 지도교수와 강사진은 아래와 같다.

중어과—김지일부교수, 황동석(C3)
서어과—김이배조교수, 장선영조교, 노어과—김학수조교, 원종혁(R4)

(사진 하기 무료 강좌)

대학카토릭 학생총연합 회장에 최군

4일 정기총회에서

대학카토릭 학생총연합회 정기총회에서 본대학 최정남(崔正男—S3)군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동 대학카토릭학생 총연합에서는 8월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대구 효성여대(艧星女大)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동대회에 본대학의 이인성(G4), 최경남(S3), 신차식(G4)군이 참가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동 회의 회장에는 이(李仁生)군이었던바 이번 신임회장에서 최(崔正男)군이 선출되었다.

동 대학카토릭학생총연합회의 금년 총회의 주요 안건(案件)은 현 한국사회와 대한교육에 따르는 카토릭학생운동의 진로로써 전축지도에는 불란서 신학대학을 출입한 나(羅相頤) 신부이었다. 동 대회후에 부산 송정에서 5일간의 피정미사를 드렸는데 일과로는 매일 아침미사와 조과, 낮에는 자유시간, 저녁시간에는 만과와 카토릭학생 운동에 관한 토론을 했다.

정병준 동문 귀국

영국 Diploma Course에서 영문학전공

본대학 제2회 동문이며, 영어과 조교에 재직했던 정병준(鄭秉俊)동문은 영국 Britich CouncilScholarship로도작년 7월 27일 도착(渡英)하여 1년간Diploma Course에서 영문학 연구(구로 Shakespare)를 하고 지난 8월5일 귀국하였다.

드디어 도서관·대학원 신축계획 완성

대지 1천 4백평에 4층 건물

9월 1일부터 착공

서무과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도서관과 대학원 건물을 신축할 예정으로 그 계획이 한프로이어 그의 착공을서두르고 있다 한다

동 건물은 본관 후면, 성애원(聖愛院) 전면에 총 1,400평의 대지 위에 4층의 아담한 스타일로 세워질 것이다

공사는 우선전설사의 담당으로 9월 1일부터 시작될 것인바 이로써 그동안 교사내에 협소하게 사용되어 오던 도서실은 앞으로 대폭 확충될 것이며 의자 수의 부족에서 오는 불평등 은주취를 감추게 되었다. 한편 시급을 요하는 캠파스 정비등이 얼마나 만족스러워질까 학생들로 부터의 기대가 큰바 있다.

영어과 주최 영어극

「The Circle」성료

16일 三·一당에서

그동안 학교사정으로 인해서지연되었던 영어극 The Circle공연이 지난7월 16일(토) 3시, 8시 2차에 걸쳐 시내 진명여고강당인 三一堂에서 성황리에 개막되었다. 동공연은 약 2천여 청중의 열렬한 찬사와 마불어 우리 외대학생들의 정성어린 무대예술 과시를 하게 주었다.

(사진은 동 연극중의 한 장면)

천승준동문 추천완료

「현대문학」 평론부에

본대학 제3회 동문인 천승준(독어과출신)군은 이번 9월호로써 월간 문예지 「현대문학」에 평론부 추천을 완료 하였다.

제1회 평론문은「인간의 궁정——오영수론——」(92년 9월호, 64페이지)였으며, 제2회는「현대적 작가형」(93년 9월호, 103페)이었다. 이로써 현 한국문단에 평론부를 장식할 천승준의 앞으로의 작가적 태도가 주목되고 있다.

A Bottle Imp영어 방송극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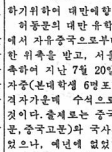
자매지 아거스사 주최로 9월중게

금번 본보 자매지 영자 아거스사에서는 영어 방송극 A Bottle Imp (병속의 요정)을 AFKN, KBS, HLKY에서 방송할 예정으로 있는데 Director에는 Rothhaar씨로써 이미 4명의 Cast 선정이 끝나 9월1일부터 본격적인 각본연습을 실시하여 늦어도 9월중순경에는 개최하게 되리라한다.

동문 소식

허세욱동문 대만유학

9월에 대만국비장학생으로



제 2회의 허세욱(許世旭) 동문은 9월25일 국비 대만연구회 장학금으로 대만에서 약 2년간의 연구를 하기위하여 대만에향발하게 되었다

허동문의 대만 유학과정은 문교부에서 자유중국으로부터 장학생에 대한 위촉을 받고, 서울 문리대에 위촉하여 지난 7월 20일 15명의 응시자중(본대학생 6명포함) 2명의 합격자가운데 수석으로 합격하였던 것이다. 출재로는 중국어(현대문, 작문, 중국고문)와 국사의 2종류 준비 있으나, 예년에 없었던 중국고문의 출제로 응시자들은 적 고투를 하게 되었다 한다.

앞으로 허동문은 대만 사범대학 연구소에서 중국어를 연구하게 되리라하는데, 기금까지 전부 이리시에 있는 이리상업고등학교에서 중국어교편을 잡고 있었다.

한편 허동문은 금번의 대만장학생 응시를 최르고 난 감상을 다음과같이 말했다.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유학열의가 증가 퍼졌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의 출제 가운데는 우리대학에서 학습치 않았던 중국어고문출제로 예상외의 힘이 든것 같다. 내 생각에는 우리대학의 학점을 노린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앞으로는 본대학당국에서도 어려방면의 최교가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당국의 대외활동이란 후예와 재학생전체를 통해서 여간 필요한일이며, 대만에는 2년간 머무르게되며 그곳에 가더라도' 여러외대의 동문 재학생들을 위해서 전력하겠다. 특히 학교와의 긴밀한 연락이 있기를 바란다.

(사진 허세욱동문)

신축변소 완성

22일부터 사용키로

그동안 재학생들에 비해 협소하여 많은 불편을 느껴오던 변소를 복축에 새로 신축하였다 이 신축한 변소는 전평 37평으로 현재 단장에 바른채 놓여도 오는 22일 개강일부터는 사용하게 되리라 한다. 한편 지금까지 사용하여 오던 변소는 그전에 철거하게 될것이다.

복도에서 영창하는 학생 기분은 카루소?

이달 chronicle

▲그동안 고대하여 오던 학내 도서관과 신설될 대학원 건물 신축공사계획의 완성을 보아 오는 9월1일 부터 착공하게 되리라 한다. 확소 걸출적으로 이제야 착공하게 된 것은 막한 일이긴 하지만, 확소 걸출이나마 시들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욕 최기만 바랍니다.

▲곧 대학도 구미운 어름방학이 끝나게 되는데 개학을 앞두고 새로 단장한 변소준공과, 파손된 유리창등을 개수(改修)하기에 분망한데 여러 덧붙여 캠파스에 의자라도 그 놓일에 마련해 주셨으면 어떨까요.

▲한편 기다려오던 학생휴게실이 준설되어 비가 오는 날에도 복도에서 지내던 때와는 달라졌지만, 여기에 게필이나 거울, 기타의 장식물로 멋실공휘 휴게실의 이름을 갖출수 있는 장소로 마련해 주셨으면.

▲언제나 말썽이 있는 식당 기는 의장이 위촉한다. 의장은 대의회를 통할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서기는 회의록 및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제十二조 대의회는 본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재적과반수의 출석대의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제十三조 대의회 5인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의장은 대의회를 비밀회로 할수 있다.

제十四조 대의회는 중대의안의 의결에 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학생총회에 부의할수 있다. 전항의 결의는 재적 3분지2이상의 찬성으로하며 총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제十五조 대의회는 예산안, 결산안을 심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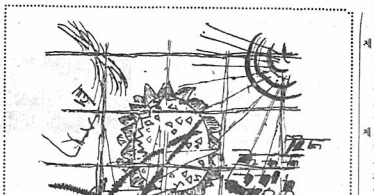
제十六조 대의회는 중요한 자치활동을 의결하며 필요한 규칙을 제정한다.

제十七조 대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는 회무를 감사(監査)하기위하여 필요한 문서를 제출케하며 의견 또는 증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十八조 상임위원회가 회칙을 위반했거나 회무수행상 심히 부당한 처리를 하였을때는 대의회는 상임 위원회를 불신임 할수있다

제十九조 대의회는 대의회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二十조 대의회는 의사진행과 정서유지를 위한 필요한 규정및 대의원 징계에 관한 규약을 정할수 있다.



해바라기 컬·글··姜 雨

차분한 마음으로 그림인 山과 江의 後身처럼 하늘을 떠받치는 慾望, 아무도 찾으아지 않는, 아니 아무도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시간, 창앞에 서서 이글거리는 정열의 瞳子를 무수히 열어 제치고 땅에서 솟아난 이야기를 하듯 화사한 얼굴, 금방 하늘로 승화하려는지 전설의 노래라도 부르려는지 수집은듯 고개숙인 오잇한 姿勢여——

학생자치 회칙

(단기四二九三년七월十二일 대의원회의 통과)

제一장 총 칙

제一조 본회는 학생자치회라칭한다
제二조 본회는 대학내에 둔다.
제三조 본회의 목적은 학생자치의 정신에 입각한 진전한 학풍의 수립과 인격도야에 있다.
제四조 본회는 제학생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五조 본회의 조직과 운영은 과회(科會)를 중심으로 한다.

제二장 과회및 여학생회

제六조 학내의 각학과는 당해학과 학생전원으로 구성되는 과회를 둔다. 과회의 조직과 운영은 과회에서 결한다.
제七조 여학생회는 회대제적여학생 전원으로 구성한다. 여학생이 남부하는 회비의 반액은 여학생회 회비로 한다. 여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은 여학생회에서 정하고 그 지위는 과회에 준한다.

제三장 대의회(代議會)

제八조 본회의 의결기관으로 대의회를 둔다. 대의회는 각과 각학급및 여학생 각학년 一인의 비율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九조 대의원의 임기는 一년으로 한다.
제十조 임기 대의회는 매학기초에 소집하고 임시대의회는 상임위원회 또는 대의원 10人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제十一조 대의회는 의장1인, 부의장1인, 서기1인을 둔다. 의장및 부의장은 대의회에서 선출하고 서기는 의장이 위촉한다. 의장은 대의회를 통할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서기는 회의록 및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제十二조 대의회는 본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재적과반수의 출석대의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제十三조 대의회 5인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의장은 대의회를 비밀회로 할수 있다.
제十四조 대의회는 중대의안의 의결에 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학생총회에 부의할수 있다. 전항의 결의는 재적 3분지2이상의 찬성으로하며 총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제十五조 대의회는 예산안, 결산안을 심의한다.
제十六조 대의회는 중요한 자치활동을 의결하며 필요한 규칙을 제정한다.
제十七조 대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는 회무를 감사(監査)하기위하여 필요한 문서를 제출케하며 의견 또는 증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十八조 상임위원회가 회칙을 위반했거나 회무수행상 심히 부당한 처리를 하였을때는 대의회는 상임 위원회를 불신임 할수있다
제十九조 대의회는 대의회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二十조 대의회는 의사진행과 정서유지를 위한 필요한 규정및 대의원 징계에 관한 규약을 정할수 있다.

제四장 상임위원회

제二十一조 본회의 집행기관으로 상임위원회를 둔다. 상임위원회는 각과회및 여학생회에서 1인(영어과는 3인)씩 선출한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대의원은 상임위원을 겸할수 없다.
제二十二조 상임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사회한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되 대의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二十三조 상임위원회에서 협하는 회무에 대하여 상임위원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二十四조 상임위원회는 회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소하원회를 설치하여 집행토록 한다. 소위원회 설치규정에는 명칭, 목적, 기간, 경비, 위원을 명시하여 붙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소위원회의 경비가 십만환을 초과할 때는 대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의회는 설치규정에 따하여 수정권을 갖는다.

제五장 재정

제二十五조 본회의경비는 회원이 등록시 납부하는 회비에 의한다. 신입회원에 대하여는 입회비를 징수한다. 회비및 입회비의 금액은 대의회에서 정한다.
제二十六조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학기로 한다. 상임위원회는 대의회의 동의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
제二十七조 예산안은 학기별로 책정되어야하며 동일항에 관하여 계속지출을 요할때는 계속비로써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二十八조 차의할동비는 대의회에서 공평하게 각과회에 분배한다. 예산비의 지출에는 대의회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임시긴급의 경우에따라 대의회의 승인없이 지출하였을때는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六장 회칙개정

제二十九조 회칙개정의 제안은 대의원10인 이상의 찬성 또는 상임위원회가 행한다.
회칙개정의 의결은 대의회에서 재적3분지2이상의 찬성으로한다.

제七장 부칙(附則)

제三十조 본회칙은 대의원회에서 통과된 때로부터 시행하며 동일로 학도호국단비를 인계받는다.
제三十一조 단기四二九三년도 상임위원회 위원장만은 전체학생회 선거로 한다.

(알 림)

▲장 상 준(E4)
본보 기자로 명함.
본 학보사는 3층 321호로 이전하였기로 이에 알림.
단기4293년7월22일

·외 대학보사·

원 고 모 집

본 학보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학술 연구논문, 경제, 법률, 정치 논문, 창작(이상 200×30) 단편번역, 콩트(이상 200×25) 수필(200×15) 시(2천 이내)
마 감 마감기일은 특별히 없으나 월수목 매달 5일 이내에 제출 해 주시오.
제출처 3층 321호 외대학보 편집실.
주 의: 학술논문 이외에는 필수목 한글로 쓰되, 띄어쓰기와 철자에 유의할것.
투고된 원고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기재분에는 해당 원고료를 지불함.

4293년 8월 일

외대학보 편집실

표준 음악 사전
음악말 음악가
四六版 本文模造紙 高級洋裝製本 譜表. 寫眞. 多量挿入
總 350 面 定價 2,000圓
금 수 현 엮음
이 음악 사전에는 음악에 필요한 모든 것이 수록되어 있읍니다.
문교부에서 제정된 한글 음악말, 원어 음악말과 그 표기, 음악가 명단과 그 표기등을 위시하여 여러가지 일람표, 외래어 표기법등은 앞으로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이야말로 음악가, 음악 교사, 각급 학교 음악학도는 물론 집필가, 편집인, 아나운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지침이 될 것을 믿고 펴는 바입니다.
發行處 新興出版社 電話⑧三七九八

自作詩解說叢書
團體注文엔 特別割引價로 提供합니다
① 朴木月著 보라빛 素描 定價七〇〇圓
② 趙炳華著 밤이 가면 아침이 온다 定價七〇〇圓
③ 張萬榮著 里程標 定價七〇〇圓
④ 柳致環著 구름에 그린다 定價九〇〇圓
⑤ 朴斗鎭著 詩와 사랑 定價一,〇〇〇圓
⑥ 韓何雲著 黃土길 定價九〇〇圓
⑦ 趙芝薰著 僧舞 近刊
⑧ 金春洙著 꽃처럼 곱게 눈을 뜨고 近刊
⑨ 徐廷柱著 별과 그늘에서 近刊
韓國詩壇에 波紋된 問題의 書。詩作生活의 奧妙한 秘密을 大膽한 筆致로 赤裸裸하게 描破한 自作詩에 對한 自叙的인 解說書!

학생혁명과 학생이 갈길

김 인 선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립이나 불란서나 세계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혁명이란 역사가 없이 발전한 나라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사월학생혁명은 우리들에게는 보다 의있는 것이며 없어서는 아니될 일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어떤사람들은 혁명이 무엇인지 무엇을 혁명하는지 잘기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것 같이 보인다. 무엇보다도 학생혁명운동에 있어서 우리들이 잊어서 안될것은 형식적인 system의 면과하기 보다도 그 system을 운영하는 그 사람의 人間愛만 것이다. 참된 애국심이 없이 참된 혁명이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참되게 인간을 사랑함이 없이 참된 system도 있을 수 없을것이다. 학생혁명은 알기 쉽게 말하자면 「人間은 거짓을 버리고 참(眞)으로 돌아가라」는 말뿐 밖에 그 다른 생각한다. 사람 앞에서 솟고 뛰고 돌아가서는 깔을 던지려는 인간의 모든 기만과 협잡을 조작한 Shakespear의 惡人 Iago나 그와같은 인간의 모든 거짓과 불의와 부패를 불태워 없애려는 혁명의 불은 학생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타고있어야한다. 이 혁명의 불은 인간의 모든 거짓과 부패된 불리와 사랑이 없는 이 깔깔한 사회에 빛나는 등대가 되어 사람자체가 새로워지게(recreation)새로이 다시 날수 있는(to-be born again)원동력이 되어야한다.

혁명이란 친구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혁명의 정신은 남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려는 것이며 남을 멸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존경하라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친구를 욕하고 비난함으로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은 독재자가 권력으로 약자를 억압하려는 방식과 같은 것이다. 우리의 자유를 친구를 말하게 억려는데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자유 (freiheit)란 主觀的으로는 기쁨수(freude) 있어야 하며 客觀的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며 존경할수 있어야 된다. 다시말하면 自由人 혹은 革命人이란 그사람자신이 남 기뻐야 하며 그의 마음속에는 끊임이 없는 평화가 있어야 할뿐만이니라 다른 사람을 존경하며 사랑할수있어야 한다. 자기와 똑 같이 생각하지 안는다고 혹은 자기와 같이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욕때를 그에게 가한다면 그 자유는 참된의미에 있어서 자유가 아니고 파괴다. 자기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유를 속박해서는 안된다. 자유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경조를 잘아서도 안된다.

우리들은 자기자신을 과대평가하여 남을 비판하는데 자기를 포함으로 할때가 많다. 「너희들은 나를 보라 내가 바로 인간의 모범이다」고 예기리데서 떠드는 거짓 전도자와 같이 위선자가 되서는 안된다. 우리들은 서로 각자의 아름다움을 인정해야 한다. 코가 곤 사람이 코가 적은 사람더러 네코가 작으니 보기좋다든가 네작은 코를 내코와 같이 크게 만들어 내라고 욕하고 비웃어대면 그 두사람 사이에는 평화가 있을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개인이 잔란의 포준이 된다든가 혹은 authority가 된다고 믿어서는 안된다. 요사이 흔히 사람들이 「그는 法의 authority」다 혹은 「그는 Shakespear의 authority」 다 무엇의 또 그 무엇의 권위자라고 말하지만 사람이 어떤 문제의 authority란 말은 그 사람만이 그 문제를 잘 안다든가 그 사람의 의견이 결대적이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졌으나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열이면 열사람의 모양이 다 다른것과 같이 열사람의 생각도 이제도 다 다르며, 여기에서 어떤 개인이 누구보다 더 권위가 있다든가 그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받아들이야 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민주주의는 각자가 다 어떤 문제에 있어 authority가 된다는 것에 중점을이 있는것이며, 또 각자의 경력가 다른사람의 견해보다 높다기보다 다르다는점에 중요성이 있다. ndividuality가 superior하다는것보다 different 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견해일 것이다. 미국 계자가 School campus를 설계할때 흔히 볼수있는 현상은 그 설계자 자신이 좋다고 생각해서 만들어논 Road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만족할만한 Road가 되지 못할때가 많다. 민주주의적 campus의 road는 어떤 한 사람의 설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ready made」의 길이 아니 거라 모든 사람이 좋아할수 있는 길이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걸어다닐으로써 「자연히 만들어진」 길이 참된 길일 것이다. 「신생의정」이란 사람들이 각자가 자유로 선택해서 만들어논 길일 것이며 어떤 개인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진 「기성도로」가 아닐것이다. 이와같이 학생들의 세계는 자유로이 발전되며 학생들이 원하는 campus road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민주주의 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Chinese Cook+Japanese wife를 가진 Western Husband가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수있을한지는 모르나 누구를 막논하고 western living에 있어서 Oriental thinking을 갖고서는 평화스러운 가정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혁명이 시작된 우리들의 생활에서 우리들은 서릴 전자 「자기자신」을 찾아야 할것이다. 우리들은 오랜세월동안에 자신을 잃어버린 감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잃었다. 세월들면 한글로 표시 할수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의 이름을 漢字로만 표시하려고 한다. 우리들은 아직도 漢字가 한글보다 가치가 더 있고 한글 보다 더 중요하고 권위가 있는것 같이 생각하고 있다 그런고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이름 .서 먼저 자기나라의 언어로 표시하자. 이것이 가기발견 이며 자기발견이며 혁명이다. 비가 나의는 장마철에 기—다란 처마에 처서 선을 신고 나서는 한국의 여성들이 제아무리 진치마가 좋아도 비나서는 진탈 길에는 짧은 치마가 편할것이다. 깔단 머리칼이 보기싫다고 노—랗게 물들인 여성들을 볼때 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미국을 모방하는 Monkey와 같이 생각된다. 또 어떤 대학생들은 등록이가 없이서 학교에 갔수없는 철전인데도 불구하고 집을 팔고 가지의 말을 팔아서까지 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있다. 이와같이 이용어하는 학문의 다른사람이 대학교에 가니까 나도 가야한다는것은 또하나의 Monkey다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 돈가 학생은 무엇을 배우겠는가 무덧한 욕망도 없이 맹목적으로 학교에 들고 나는 것이 과거의 악습이었다.

그래서 공부할시간에 다섯시간 여섯시간씩 오랜시간을 담구장이나 다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학생이 많다. 학생이 상품처럼 Show window의 장식이 되서는 안된다. 학생들은 지금 조용히 자기를 반성하여 가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가를 잘 알아야 한다. 학생들이 현실을 떠나 이상주의나 관념론을 따라서는 안된다.

자칫하면 우리들은 통키호테가 되기쉽다 萬里長城을 쌓아탈 석공처럼 萬里길을 쥐어야할 마라톤 선수 처럼 학생들은 자기의 실력을 알아서 자기의 실력에 알맞게 떡잎 매일 꾸준히 노력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은 革命人 혹은 自由人이 곡 가져야할 몇가지 성격을 말해보려고 한다.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수있다」는 것이며 또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다. 「사랑」이란 우리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만일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칠수있는 사랑이 없었든들 오늘 우리세계 혁명이 없었을것이다. 우리들은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 그 숭고한 사랑을 모범하여야 된다.

그다음으로 중요한것은 「기쁨」이란 것이다 제아무리 새로운 생활목표를 한다고하여도 우리들이 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혁명에 아무런 의가 없다고 생각한다. Bethoven의 Symphony No. 9의 중요성이 있다면 그 形態의 革命과 동시에 「기쁨」이란 요소이다. 인간이 自由를 찾았을때 그기쁨이 없다면 그자유와 혁명은 거짓이다. 우리들은 우리자신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범하여야 된다.

그다음 중요한것은 「기쁨」이란 것이다 제아무리 새로운 생활목표를 한다고하여도 우리들이 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혁명에 아무런의가 없다고 생각한다. Bethoven의 Symphony No. 9의 중요성이 있다면 그 形態의 革命과 동시에 「기쁨」이란 요소이다. 인간이 自由를 찾았을때 그기쁨이 없다면 그자유와 혁명은 거짓이다. 우리들은 자신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범하여야 된다.

민주주의는 각자가 다 어떤 문제에 있어 authority가 된다는 것에 중점을이 있는것이며, 또 각자의 경력가 다른사람의 견해보다 높다기보다 다르다는점에 중요성이 있다. ndividuality가 superior하다는것보다 different 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견해일 것이다. 미국 계자가 School campus를 설계할때 흔히 볼수있는 현상은 그 설계자 자신이 좋다고 생각해서 만들어논 Road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만족할만한 Road가 되지 못할때가 많다. 민주주의적 campus의 road는 어떤 한 사람의 설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ready made」의 길이 아니 거라 모든 사람이 좋아할수 있는 길이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걸어다닐으로써 「자연히 만들어진」 길이 참된 길일 것이다. 「신생의정」이란 사람들이 각자가 자유로 선택해서 만들어논 길일 것이며 어떤 개인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진 「기성도로」가 아닐것이다. 이와같이 학생들의 세계는 자유로이 발전되며 학생들이 원하는 campus road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민주주의 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Chinese Cook+Japanese wife를 가진 Western Husband가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수있을한지는 모르나 누구를 막논하고 western living에 있어서 Oriental thinking을 갖고서는 평화스러운 가정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혁명이 시작된 우리들의 생활에서 우리들은 서릴 전자 「자기자신」을 찾아야 할것이다. 우리들은 오랜세월동안에 자신을 잃어버린 감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잃었다. 세월들면 한글로 표시 할수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의 이름을 漢字로만 표시하려고 한다. 우리들은 아직도 漢字가 한글보다 가치가 더 있고 한글 보다 더 중요하고 권위가 있는것 같이 생각하고 있다 그런고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이름 .서 먼저 자기나라의 언어로 표시하자. 이것이 가기발견 이며 자기발견이며 혁명이다. 비가 나의는 장마철에 기—다란 처마에 처서 선을 신고 나서는 한국의 여성들이 제아무리 진치마가 좋아도 비나서는 진탈 길에는 짧은 치마가 편할것이다. 깔단 머리칼이 보기싫다고 노—랗게 물들인 여성들을 볼때 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미국을 모방하는 Monkey와 같이 생각된다. 또 어떤 대학생들은 등록이가 없이서 학교에 갔수없는 철전인데도 불구하고 집을 팔고 가지의 말을 팔아서까지 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있다. 이와같이 이용어하는 학문의 다른사람이 대학교에 가니까 나도 가야한다는것은 또하나의 Monkey다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 돈가 학생은 무엇을 배우겠는가 무덧한 욕망도 없이 맹목적으로 학교에 들고 나는 것이 과거의 악습이었다.

그래서 공부할시간에 다섯시간 여섯시간씩 오랜시간을 담구장이나 다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학생이 많다. 학생이 상품처럼 Show window의 장식이 되서는 안된다. 학생들은 지금 조용히 자기를 반성하여 가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가를 잘 알아야 한다. 학생들이 현실을 떠나 이상주의나 관념론을 따라서는 안된다.

자칫하면 우리들은 통키호테가 되기쉽다 萬里長城을 쌓아탈 석공처럼 萬里길을 쥐어야할 마라톤 선수 처럼 학생들은 자기의 실력을 알아서 자기의 실력에 알맞게 떡잎 매일 꾸준히 노력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은 革命人 혹은 自由人이 곡 가져야할 몇가지 성격을 말해보려고 한다.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수있다」는 것이며 또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다. 「사랑」이란 우리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만일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칠수있는 사랑이 없었든들 오늘 우리세계 혁명이 없었을것이다. 우리들은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 그 숭고한 사랑을 모범하여야 된다.

그다음으로

<讀書餘錄>

기쁨과 나날

Les Plaisirs et les Jours

조 우 현

Marcel Proust의 처녀작에 위와 같은 제목의 책이 있다고 한다. 물론 Proust의 졸내용 내자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나날"은 있고 "기쁨"은 있으리라. 그 기쁨이 합은 것일지라도——. 이것은 나의 "나날"과 나의 "기쁨"들이다.

(1) 深夜의 思想

1942년에 간행된 Albert Camus 의 「이방인」 (L'Etranger)과 1920년에 간행된 Georges Duhamel의 「신앙의 고백」 (Confession de Minuit)을 두번 다 읽은 사람이면 누구나 놀라리라. 그것은 「이방인」의 주인공 "Meursault"같은 인물 "Salavin"을 Duhamel의 이 소설에서 발견하기 때문이다.

미구나 Duhamel은 Jules Romains 과 함께 1900년대 초기의 불란서 문학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비중이 큰 작가이고보면 "Meursault"는 "Salavin"의 분신인 것 같은 인상을 갖지 못한다. 이런 이유에서일까! Germaine Bée와 Margarette Guiton과의 공저 「An Age of Fiction」에서 "Men of Good Will"이란 소제목을 설정하고 Duhamel에 대해서 다음과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He introduces a host of lost and restless individuals. unimportant individuals, "strangers" to the world, voyagers "to the end of the night"……」

"Stranger"라는 단어에 quotation marks를 붙인 것을 보면 이제의 작자도 이전것에 유의한 것이 아닌지——.

내가 읽은 것은 "Salavin"을 주인공으로한 현작소설(勞作小說)"Vie et ventures de Salavin"중의 첫째편 "Confession de Minuit" 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나의 "기쁨"은 이것에 한한다.

Salavin은 그의 어머니와함께 아파트 생활을 하는 "White-Collar employee"이다. 어느날 Salavin은 그의 Boss에서 불려간다. 이때 한순간, Boss의 귀가 괴롭도록 그의 시야에 아른거린다. Salavin은 속으로 중얼거린다.

"Boss의 귀도 인간의 살(肉)이지 그의 귀에 입을 맞추는 사람도 있는데……"

그는 Boss의 귀에 신뜻 손을 내민다. 이 뜻하지 않은 행동에 놀란 Boss는 현훈을 꺼내며 방위태세를 취한다. 그리하여 그는 실직당한다 여기서부터 Salavin의 "심야의 생활" 이 voyager "to the end of the night"의 생활이 시작된다.

Une tempête erre sans cesse par le monde des hommes. Heureux les Coeurs torrdes gui en sont visités! Heureuse les Campagnes desséchées gue Cet orage désaltère!

폭풍우는 끊임 없이 인간세계를 헤매고 있다. 그러나 Salavin은 폭풍우에 적셔지지도 않은 불길같은 마음을갖고 방안에 박혀 몸상해 잠긴다. Salavin의 방은 그의 작국이요 조국이다. 그곳에서 어머가지 환상에 사로잡히던서 세계를 자기 것으로 소유한다. 어떤때는 꿈들이 가구에, 사진들이에 벽지(壁紙)의 꽃무늬속에서 눈을 희번득거리는가 하면, 악마처럼 튀겨나와서 방안을 전부 차지하고 Salavin을 송두리째 점령한다. 그리고는 그의 넋(I'me)의 주위에서 farandole 춤을 춘다.

그때 시간은 시로브의 바다위에 떠 대처럼 경지한다. (dés lors, let emps, s'arrêtait au millieu de l'éternité comme un navire paralytique sur une mer de sirope.)

그가 환상에서 깨어날 때는 현재 나 그의 어머니에 의해서다. 어머니의 기침소리에 근심에 쌓인 목소리에 꿈은 휘저림 가구밑으로 도망친다. Salavin은 주슨 전한 인어라도 있는듯이 당황히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뛰쳐나간다. 그가 심자로에 다달으자 저녁 일찍 길이 생긴다. 길들이 휘다히 있다는 그 사실이 그를 방연자실케한다.

그적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왜냐하면 회사라는 자기가 갈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길만 잡아가면 되었다. 오목년간의 경험이 가르쳐준 무수한 표석(標識)들이 있는 길을 가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회사"라는 목표가 없는 지금에는 어느 한 길을 택할 수가 없는것이다. 식물만도 못한 인간임을 저말고는 절망한다. 지금은 그래도 신체활동을 한다. 많은 상상이 떠올라서 그를 괴롭게한다. 이것은 그의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적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왜냐하면 회사라는 자기가 갈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길만 잡아가면 되었다. 오목년간의 경험이 가르쳐준 무수한 표석(標識)들이 있는 길을 가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회사"라는 목표가 없는 지금에는 어느 한 길을 택할 수가 없는것이다. 식물만도 못한 인간임을 저말고는 절망한다. 지금은 그래도 신체활동을 한다. 많은 상상이 떠올라서 그를 괴롭게한다. 이것은 그의 발전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모르는 Salavin은 강어구에 나가빠진 독목주(獨木舟—Pirogue)처럼 흔들리면서 바람과 조수의 흐름을 거다닌다. 그러나 바람과 흐름도 쉬이 멈추질지 않는다.

Salavin은 자신이 인간협오자(Misanthrope)가 아니라고 역설하고있다. 사실 그는——머리속으로 생각하는것 뿐이지만——인간에 대해 생각하느니만 눈물이 날 것도라고 말한다. 그렇게 인간들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나는 화합(和合)을 꿈꾼다. 세계의 조화화합은 신비있고 조화 있는 생활을 꿈꾼다."(Je rêve de concocorde, Je rêve d'une vie harmonieuse, contiante Comme une étreinte universelle.)

그렇지만 그가 머리속에서 생각하면 인간이 아니고, 자신과 유사한 산 인간을 마주칠 때면 참을 수없게 된다. 자신의 비참한 모습과 꼬빗치기 때문이리라. 그리하여 인간이 눈앞에 없을 때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인간을 다시금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고독속으로 돌아가기를 열망한다. 이것은 Salavin으로서는 당연한 결과다.

Salavin은 자기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다.

"나와같은 심정의 인간은 외계의 사물속에서 행복을 찾아야한다. 그 러나 사물속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사물속으로 내가 전진해가야 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그의 대부분, 전진하기에는 나의 넋은 너무나 때마르고, 골드의 넋이다" (Peut-être me direz-vous qu'avel une nature comme la mienne il faut plutôt chercher son bonheur dans les choses. J'entenda bien: mais il est néssaire de faire des avances aux choses pour qu'elles vous procurent de la jeie, et je suis, le plus souvent une âme trop ingrate, trop aride pour faire des avances.)

그는 심야의 백속에 갇혀서 꼼짝할수도 없다. Sartre 이후 경험파의 현대 상황의 상징처럼 사용하는 비(La Mur)이라는 말은 실서 이집의 Salavin의 비통한 의침이었다.

"벽이다. 벽! 너무 무딘고 너무 미끄럽고, 까마득하게 높은벽 앞에 선 느낌이다. 그 벽이 미대하고 한만. 그리고 그것은 마고 넘을 수도, 전복시킬 수도, 뚫을 수도 없는 것이다"

(Un mur, un Mur! Avoir l Sentimeut que l'on est devan un mur très haut trè's lisse trè, s epais, et que ce murlá C' est l'avenir, et qu'on ne peu ni l'escalader, ni le renverser ni le percer.)

그는 또한 자신을 강바닥(Le lit d'une fleuve)에 비유한다. 아마도 이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리라. 그는 소란스런 소리를 내면서 물결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낀다. 그 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인다. 그것조그래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덧붙인다. 인제나 그 호수는 받아들이지만은 않는다고, 거기에는 홍수(洪水—l'inondation)가 있다고——. l'inondation이란 무엇인가?

Salavin은 연체부터선가 flute를 불고 있었다. 서툰솜씨 그것이었지만——. 어느날 flute를 듣고 열광에 사는 계불녀(couturiere)인 Marguerite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그녀는 Salavin처럼 감상적인체다 연약한 여인이다——크게 감동한다. 그도 어떤 하나의 인간이고자 하는 욕망과 야심에 밤으로 뛰쳐나간다 Notre-Dame 사원 앞에 선 Salavin은 지저분한 생각들에서 벗어난 구원된 Salavin과 마주친다. 단 하나의 「구름」과 거친 「바람」을 입회자(立會者)로하고——.

또 하나의 l'inondation은 병을앓고난 Marguerite가 아직 방기 한 전히 가시지 않은 창백한 얼굴로조용히 난로가에 앉을 때 그때가 일어난 마음의 변화다. 그녀를 사랑하게된 것이다.

셋째번의 l'inondation은 그가 전기 집에 찾아갔을 때 생긴다. 밤새 머리에 축복이가 좋은 친구의처의 젊은 옷소매 속을 우연히 엿보게된 그는 욕망에 피로워하다 못해 슬픔을 느끼면서 도망쳐 나오고 말다.

홍수(I'inondation)는 강바닥(Le lit d'une fleuve)을 파헤쳐서 가슴속을 약간 뚫어놓을 뿐, 심야의 백속에서 그를 구출해내지는 못한다. Notre-Dame가 앞에서 구원된 자신과 마주칠을 때 입회자는 「구름」과 「바람」이었다. 그는 말든 Marguerite를 사랑한다. 그리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못하고 제 마음속에 간직해둘 뿐이다. 또한 축복적 확신은 느꼈을 때도 그는 몇이 멀리고 피로해지서 손고삐를 손놓만은 느낀다. 불꼬(不毛)의 심장, 메마른 심장은 어떻게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Salavin이 제탑는 두일 한 것을 들일 하나도 가집이 없는 적라한 자신을 자각하는것이다.

집안으로 들어가기 전의 청림하고 지저분한 항하(Couroir)가 어제를 잊누르면서 "주의하라, 넘 Sallavin 회의 아주것도 아니니까!" (Attection,Tu n'est jamais qu'um Salavin.)하는 소리와 "Vie et aventures de Salain"의 최종회편인 "Tel qu'en lui-même"에서

"허다한 꿈에 지쳐서, 조용한 정말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임을 발아들일때……"과 같은 백속에 갇힌 인간의 체념적인 비통한 회침이 있을 뿐이다. 어쩔튼 Meursault는 Salavin의 토지에서 성장(成長)한 인물이라는 사실만은 부인하지 못할 듯싶다. Camus가 그것을 의식했던 안했던간에——. Meursault와 Salavin은 다 같이 이세계에 대한「이방인」이요, 「Homme moyen」이다. 고전주의적인 인물도 자연주의적인 인물도 아니며, 평범한 「White-Collar employee」이다. 그들의 평통은 다소 변적으로 보이리만큼 놀랜한데가 있다. 하지만 이런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다른점은 너무나 많다. 주예 정으의 사상(正午의思想)을 부르짖은 Camus인만큼, Meursault에게는 적극적인 요소가 있고, 경직하면 을 내뜨리려고하는 Salavin에 비하면 감상이라고는 조금도 없다. 또한 현실에 대한 보다 날카로운 비판적인 눈이 있다. etc…

그러나 우리는 Salavin을 잊을수 없다. 신한 인간의 비통한 체념적인 의침을 그리고 Salavin의 심야의 방황으로부터 현대의 작업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2) 불들과의 通信

Il faut bien essayer de communiquer avec quelques-uns de ces feux qui brulent de loin en loin dans la Compagne.

(Terre des Hommes-Saint-Ex.)

심자로(十字路)에 나선 Salavin 처럼 헤매인들은 많았다고 한다. 자기가 가야할 도렷한 길이 없기때문이다. "회사"라는 목표가—— 자기가 가야할 곳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자자는 자기들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도 나섰다. 하지만 이 길들은 헤매다 절망하고 말았다.

Salavin은 어떤 길도 선택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내부세계만 갇히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까지 상하의 백속에 갇혀 있을 수 없다. 어느 길이든 선택해야 했다. 그렇다고는 억지만 모든것을 손일에 맡겨지는 것으로 발길을이 내키는대로 갈 수는 없었다.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비극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고로 따라 우리들은 비극적인 시대에 걸맞는 작품에 맞는 것을 지켜한다. 그러면 별 들은 일어난지 오래다. 우리들이 서 있는 이것은 새로운 조그만 신자(産地—厚居住地)들을, 세우는 것이며 새로운 조그만 희망들을 발굴해내는 일이다.」

(L'Amant de Lady Chatterley-Lawrence)

인류는 오랜 옛날부터 Paradis를 세우려는 노력을 끊임 없이 계주해왔다. 심구세기까지만도 이 노력에는 한한한 대장이 비치는 양지(陽地)였다.

Arthur Rimbaud가 아유한 것처럼 당시의전도자(Ecclésiaste)는 즉 모든 사람들은 부르짖었다.

「어떤것도 꿈하지 않다. 과학으로, 그리하여 전진! 」 (Rien n'est vanité; à la Science, et en avant!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누구라나 이렇게 고한될 사람은 없다. 현대인은 심구세기의 인간들처럼 키다란 낙원이나 키다란 희망을 바라지도 않지시하 바랄리고도 하지 않는다. 단지 조그만 출입구를 찾아 내려고 할 뿐이다. 「Petit」이란 필용사를 쓰지 않을 수 없는 Lawrence의 절망은 곧 우리들의 절망이다.

우리가 이는 한갈래의 길을 선택하며 조그만 산지(産地)를 세우고, 조그만 희망들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는 세계를 우리들의 상황을 무엇이 결지해야 한다. 무엇이 본다는것(Voir Clair)은 또한 자유를제지기 위해서다. 허위로부터 자기기만(自缺欺瞞)으로부터 인습(因襲)으로부터 사물로 부터 자유롭게 되기위해서다. (Valery Larbaud)

Andre Malraux는 「Les Conquérants」속에서 Garine이란 인물을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On peut vivre en acceptant l'absurde, On peut pás vivre dans l'absurde.……」

부조리를 받아 들이면서는 살 수 있지만 부조리속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다. 부조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부조리를 인식 한다는 것이요 세계를 무엇이 분명(voir clair)는 것이다. 그는 부조리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단지 자기 혼자만이 아니고 대의 고독감에 사로잡힌다. 이순간에는 욕을 조이는듯 실린동정심(pitié)도 산산히 흩어진다. (…quand Je me suis retrouré seul avec moi-même. Cette pitié à toujours fini por se désagréger.) 그렇다고 말해서 도망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말해서 도망치려고 하는 자들은 그들의 순가락끝에 당이 달라붙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고통은 생의부조리를 더욱 조인다. (La Souffrance Reforce l'absurdité de la Vie.) 여기에 비상한 결과되어 진소하다. 그것은 행동이다. Malreaux와 Saint-Ex같은 영웅들이 나타난다.

전설적 인물인 Malreaux의 모험은 내게는 현기증을 일으킬 뿐이지만 Saint-Ex의 소박한 Heroisme에는 보다더 친밀감을 느낀다. Saint-Ex의 작품을 읽을때면 성자(聖者)도 아닌 된듯 경건한 마음으로 피돌아간다. 산신히 것보한 인간의 존엄과 고귀함이 여기서 되살아난다.

Saint-Ex는 동부들이 보수고 평을 파헤치듯이, 비행기라는 인장(도구)을 가지고 이세계(Nature)를 파헤치면서 조그만 희망들을 발굴해냈다. 이런 작업을 하면서도 그가 잊지 않은 것은, 시골 농가들의 빨래줄에 — 다정 스럽게 헛날 이야기도 하고, 서로 사랑을 속삭이기도하며 혹은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는 불빛들과의 통신이다.

「우리들이 시도해야할 것은 시골 빨판의 여기서 부터 계일비까지 작열하는 불빛들과 서로 통신하는 일이다」 (F 4)

(2면서에)

수산업의 전망과 수영

韓 珍 熙

水泳은 一般體育運動과 같이 身體鍛錬과 精神修養을 爲主로하는運動이다. 그러나 全身에 미치는 効果와는衛生 例外이었도 至大한것이다 좋단아니라 不思의 遭難과(突然被溺) 救出에 必要한 技術과(靠岸術) 救命術(靠岸術之一) 人命救助術(靠岸術之二) 救出後 人工呼吸法(靠岸術之三) 이제를 일이 없게에는 最高 最强 最適 最安 上昇하므로 水泳을 처음하는 사람들이 가끔 머리가 무겁고 頭痛도 는 貧血症이 생기는 일이 많다.

그 理由는 心臟이 上昇하는 血壓에對抗하여 血液을 末梢로 抗送할때 많이 努力함으로 생기는症狀이다. 그러나 水泳이 좀 能熟해지면 心臟의 發展도 낮아질으로 이런 症狀도 없어지다.

그리고 水泳初步時代에는 呼吸器 과도의 負擔을 받를로 어려빈 셋고 다음에 全身을 물에 잠겨서 시켜야한다. 이렇게 하는것은 心臟麻痺와 筋肉痙攣(쥐)을 豫防함이다.

3. 모진 더위에 發汗이 甚한때에 물에 그냥 뛰어들지말고 먼저 冷體할으로 心臟麻痺나 쥐가일어나기 쉽다.

4. 水泳을 할줄 안다고 單獨으로 깊은물에 밀리 水泳하여 들어가는것은 危險한일이다. 高一 平仓事故가 생기면 別道理가 없다.

初步者 入水時 注意

初步者가 水底의形跡을 모르면서 물에 들어갈때에는 格別히 注意하여야한다.

濱江水泳場과같이 每年淡水로 水底가 고르지못한 물에 들어갈때에는 처음에는 前面으로 數步前進後 漸漸깊어 지게되거던 모으로(橫行) 들어가라가 첫거름첫걸음에서 물이 는것이 安全하다. 그렇다는 첫거름 첫걸음 걸음에서 물에 빠지게되면 無能論 이에러도 急한길에 手足만 사주 놀리면 얕은데로 다시나올수가있다.

筋肉痙攣(쥐가) 일어났을때 措置

水中에서 쥐가 急作히 일어났을때에는 손을 먹지말고 水中에 가라앉으면서 쥐가 일어난데를 兩手抱 抱로 찍누르고 발목을 세게자 水中에서 숨이 턱턱연 水上으로 헤어오른다. 繼續해서 쥐가 일어난데 다시 물속에 가라앉으면서 같은方法으로 또한다. 이렇게 자주 쥐가 일어나게되면 할수있게되니 깊은물에 혼자서 멀리 들어 가는것은 危險한일이다.

배나 보트가 顚覆됐을때

이렇게일수록 평탄히 멀비지말고 沈着한마음으로 損害을 보지않게 하고 나오게된 맵잡을 붙들고 救護를 請하라. 橫側으로 나오는方法은 顚覆時 곧뛰上에 暴手하면 맵속 널판지가 손에 닿게됨으로 縱橫을 區別할수가 있다.

진에나 바다로 가게되는데 格別히 注意하지아니하면 黃天客이되기 어렵겠다.

水泳을 한다고해서 消化器를 救해내는것은 아니다.

물에 빠진사람을 救해 냈다는 것은 至極히 어려운 일이기때문에 水上救助法을 배우고도 無心히 練習하여 하고 溺死者를 救出해 냈을때는 人工呼吸法을 加하여回生도록 努力하여야한다.

水泳法 各種과 以上의 救出 回生法 等은 一朝의 講義로는 證得키 어려움으로 本大學에서는 年年 海水浴場習會를 開催하여 理論과實際를 並行하는것이다.

今年도 8月 1日부터 10日間 忠南大川海水浴場을 다녀왔는데 내년에도 많은 참가자가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는 昨年분에 本大學 財團에서 學生海水浴場員을 爲하여 新進濟 한 外大別莊(海岡別莊)그리고 仁旨外 風景이 그림못한 陽別은 避暑 地이다. (상사)

同窓餘題

어린 학보사와 연을 맺고 지낸지 3년이 되는가 보다. 그동안 본 의대학보도 성해와 아울러 그 나이 37, 바야흐로 장년 에 이른 감이다.

처음 노어과 1회 동문인 손형의 손을 거쳐 본대학 창립당시 본보의 창간호가 발간되고 다음 정식으로 공보실의 인쇄 공 허가를 얻고 시작한 중이라 2회 동문인 허형 그리고 다시 노어과에 재학 했던 허형을 거쳐 내게 넘어 온 호수(號數)가 13호 였다. 생년부지로써 아주의 도움도 없이 대학신문의 편집과 조판이란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학보의 연령과 머물어 던의 중대 그리고 될 정기일의 경확한 발행은 학생들에게 신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심을 모았다고 본다. 여기에는 동아출판사 공무부 특히 신문부의 조력하는 분들의 도움이 컸음을 적어두고 싶다.

한 대학의 신문으로서의 위치는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일간신문과 월간 이 대학의 학보 편집 내용을 결정하기는 극히 에매하고 난처하다. 뉴—스를기 싶고, 지난 소식을 기재하기 한 거의 덕 빠진노릇일 수 없게 없다. 게다가 우리 대학은 여학 전공 학교라서 일반 정치 경제 법률 기타학식 고 기재한 상가 됐었으므로 순문예적 성격을 띠우고 말게 되었다. 그래서 한때는 문단을대 상으로 순수한 학구적 의미에서 문단에의 전의, 처인과, 때로는 공격도 가끔 본적이 있었다. 하나 어쩔한 이지 학문하는 학생으로서의 논문 기타의 원고에 있어서 공정한 협정 중립을 지켜나가기란 좀 힘든노릇이기도 하다. 결국 내용의충실이란 대학의 학보(新聞)로써 독이나 갈도(肝要)한 일이어서 이 따라 원고의 취사선택의 문제는 바로 학보의 사활(死活)의 문제와 같다고 느꼈다. 기사와 원고 배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본보 창간 무렵 같이 제1면을 완전 논문 전재(全載)를 하고 기사는 주의 사소한게 취급하는 방법을 택할까도 해 보았으나, (이것은 월간인 관계로 기사의 참신성이 결여된 점으로 보아 일리가 있으며, 현재 고대의 고대신보의 예가 그과 비슷하다, 여기서는 기사를 2면으로 올기고 그의 농도를 중요시 함에는 다른 대학과 차이가 없다). 기사의 중가와 빈곤의 신속성의 차가 심해 에의 대학신문과 같게 취급하기로 한것 같이서 이는 주의 사소한게 취급하는 방법을 택할까도 해 보았으나, (이것은 월간인 관계로 기사의 참신성이 결여된 점으로 보아 일리가 있으며, 현재 고대의 고대신보의 예가 그과 비슷하다, 여기서는 기사를 2면으로 올기고 그의 농도를 중요시 함에는 다른 대학과 차이가 없다). 기사의 중가와 빈곤의 신속성의 차가 심해 에의 대학신문과 같게 취급하기로 한것 같이서 이는 주의 사소한게 취급하는 방법을 택할까도 해 보았으나, (이것은 월간인 관계로 기사의 참신성이 결여된 점으로 보아 일리가 있으며, 현재 고대의 고대신보의 예가 그과 비슷하다, 여기서는 기사를 2면으로 올기고 그의 농도를 중요시 함에는 다른 대학과 차이가 없다). 기사의 중가와 빈곤의 신속성의 차가 심해 에의 대학신문과 같게 취급하기로 한것

학보의 주변에 서서

현 진 이

이다. 한편, 물론 언어 전공대학이라고는 하나 급진적으로보면 전의 나가는 과학의 세계에 대한 원고를 기재 할 수 없음과 또한 국내외 세계의 급변이는 일반적 경제 정치의문제를 기재치 않고서 하나 계현 신문은편파된 유리된 세계에서 충분한 양분이 부족되는것 같은 느낌이 긴절하다. (이에는 학보의 근본 방침이 결여됨. 註) 학보 실무의 고수은 실상 고생만은 은 아니다. 자기학고 기재 성학으로 시고합게 구는 일. 기타 말 할 수 없는 일들이 거의 끝이지 않는다. 한때 어느 교수는 학보의 불필요성을 주장 간직도 그렇다. 그러나 학보는 많은 난들을 조용히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이겨낼 것이다. 이것은 학보의 고통감에 사로잡힌다. 이순간에는 욕을 조이는듯 실린동정심(pitié)도 산산히 흩어진다. (…quand Je me suis retrouré seul avec moi-même. Cette pitié à toujours fini por se désagréger.) 그렇다고 말해서 도망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말해서 도망치려고 하는 자들은 그들의 순가락끝에 당이 달라붙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고통은 생의부조리를 더욱 조인다. (La Souffrance Reforce l'absurdité de la Vie.) 여기에 비상한 결과되어 진소하다. 그것은 행동이다. Malreaux와 Saint-Ex같은 영웅들이 나타난다.

전설적 인물인 Malreaux의 모험은 내게는 현기증을 일으킬 뿐이지만 Saint-Ex의 소박한 Heroisme에는 보다더 친밀감을 느낀다. Saint-Ex의 작품을 읽을때면 성자(聖者)도 아닌 된듯 경건한 마음으로 피돌아간다. 산신히 것보한 인간의 존엄과 고귀함이 여기서 되살아난다.

Saint-Ex는 동부들이 보수고 평을 파헤치듯이, 비행기라는 인장(도구)을 가지고 이세계(Nature)를 파헤치면서 조그만 희망들을 발굴해냈다. 이런 작업을 하면서도 그가 잊지 않은 것은, 시골 농가들의 빨래줄에 — 다정 스럽게 헛날 이야기도 하고, 서로 사랑을 속삭이기도하며 혹은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는 불빛들과의 통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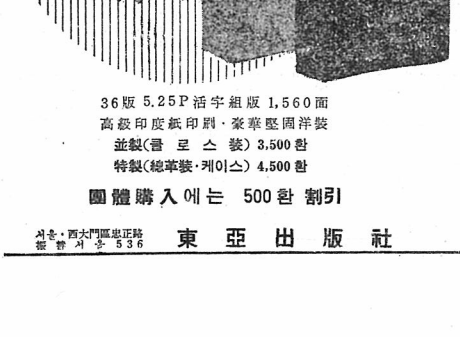
「우리들이 시도해야할 것은 시골 빨판의 여기서 부터 계일비까지 작열하는 불빛들과 서로 통신하는 일이다」 (F 4)

(4면에 계속)

東亞出版社 광고

이 辭典의 出現으로 日本版辭典 使用의 군색함이 이제야 完全히 解消되었다!

우리 만한 나라에도 이 辭典이 있는가? 이 辭典을 손에 넣을 수 있는가? 누구나가 한결같이 느끼는 感歎이다!



特色

❶ 世界最高의 英語辭典 N.E.D.의 歷史的解說方法에 依해 말의 산 뜻을 解明.
❷ 正確平易한 풀이와 大辭典과 겨눌 만큼 豊富히 收錄된 權威 있는 用例
❸ 初學者의 便宜를 위해 基本語 3000餘에 對해서는 特히 詳細히 說明.
❹ 新時代의 要求에 呼應하여 新語·新語義 및 固有名詞를 大幅으로 挿入.
❺ 各部門權威者들의 責任監修를 거쳐 正確을 期한 科學技術專門用語.
❻ JONES 最新版과 RAINER 敎授의 校閱에 依한 標準的發音表記·美式發音併記.

語彙數 10萬

동아영한사전

36版 5.25P活字組版 1,560面
高級印度紙印刷·豪華壓固洋裝
並製(클 로 스 裝) 3,500환
特製(總革裝·케이스) 4,500환
團體購入에는 500환 割引

서울·西大門區忠正路 振替 서 울 536 東 亞 出 版 社

責任校閱 서울大 文理大 高錫龜 高麗大 文理大 金宗吉 西麗大 文理大 呂石基 서울大 師大 鄭炳祖 韓國 外語大 韓喬石 서울大 文理大 G. RAINER

컬·李炭

여인과 바다와 노래

變更線近處

(꽁뜨) 강 문 자

국망산(國亡山)과 캐틀고개 사이에 큰 시내가 흐르고 물이 고이기 못한 내스물레는 물자갈이 사뭇 물어나 연암(鉛岩)천 곳에 『미 군과고 분답』이 주둔하고 있었다.

일찍기 전쟁으로 황폐됐던 이곳에 차츰 토방(土房)에서 가난한 피난민들과 트내기꿀이 모여 들고, 도상술(賭術)에 밝은 패들은 그네들대로 미군부대 근처로 모여들어서 아닌 황무지에 캐바레까지 생긴 알궂은 번이지(蟹異地)가 이곳 3·8선 북쪽의 변경선 근처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캐멜한 이름 역시 낙타등같다는 고개를 의미합것은 미군들이 계집을 껴대로 붙여준 이름인듯 하다.

작년 한여름을 얼마 보냈을 무렵 이곳 계곡을 따라 흐르는 시내에 새파란 가시내 둘이 찾아 들었다. 에당초에 무슨 꿍꿍이 수작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되 이 두 새파란 계집애들은 인부를 부리고하여 부산스런 몇일만에 파란 계꾀까지 벌인일그만 하꼬방 한채를 출렸다. 이튿날 을 둘러 온갖 잡패들은 제멋대로 고네들에 찬물이 지껴대대고 있었다.

『자 새파란 것들이 미군들 코앞에다 저집 세우고 무얼 작정인고』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듯한 홀을 보는 여편네는 경상도 아주말내였고

『쌀닥지게 배를 참이겠다.』 하던이는 빈대떡집 만사불통인 경안도노파 평강댁이었다.

그녀들은 이런 소리를 들었는지, 듣고도 못들은 척 하는지, 그날 그날 술독을 나르고 얼굴에 다정한 화장들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를 빈대떡집 노파의 무경비숯한 말이 자주 들리는 것으로 보아 저쪽 샛라한 계집애들의 짚의 술군들이 퍼질린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

그네들은 미군들도 불러 들였다. 그이나 그것은 밤에만 그런 모양이었다. 그런데 누구의 입에서인지 그 나들은 특잔은 형리잔인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이 괴상한 킴멩주시(金名株式)주박은 그녀들의 긴한 밤비꽃 때문에 이른 아침의 해장국은 먼이 먹을수도 끓이지도 않았다.

봄을 겹이 끝떨서 이 혼성 주막은 더 번창해 지는것 같았다. 계법 돈콘이나 풍았을 뱉때 그런 것들도 없이 주막내부를 단장한다든지해서 장사를 썩 잘하는 편이었다.

허지만 저지 아무도 그녀들의 고향이며 바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거나한 술군들이 간혹

『그지 시악서 집이라면 좋잖갑으요.』

이것도 미궁으로 이고는 세써들에게서 달리 무엇을 알아볼 도리가 없었다. 그저 셋라인것들 집으로 가세—하던 술군들은 다들 알아차리고는 우루루 웃을을 뻐뜨리며 몰려가곤 했다.

평양 노파에게는 이 몇달치럼 뒤숭숭한 때는 없었다.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을뿐더러, 자신의 주위가 더럽이 싸늘한 느낌이 들었다. 죽은 남편과 어린제로 두고온 자식들이 어줍지럽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어위게하는 일은 일찌기 없었다. 〈내 말년을도 저것들만한 나이에 이렇거니〉하는 까무라칠듯한 심사였다.

그러니까 음(陰) 7월 초순쯤 한날 저녁무터 퍼붓기 시작한 폭우는 잠시도 쉬지않고 쏟아졌다. 몇시간 사이에 냇물이 넘치서 양쪽 산기슭과 고지에 위치한 고분단자리를 두고는 천지가 물바다로 변해 버렸다. 마을에도 물이 들기 시작하였다. 아우성과 뇌동속에서 아무도 다른 사람을 돌볼 여가가 없었다. 먹을것 입을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산비탈을 타고 기어오르는 도리밖에 없었다.

그때도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은 산비탈이나 큰바위를 의지할 수 있었으나 그들이 억세 격류밑에서 구걸구걸 들 구는 소리와 함께 한체 한체 집이 물에 쌓이는 광경을 보고 있을 즈음, 새파란 꾸밈은 시악씨들의 판자집은 흔적도 없이 떠내려 가고 보이지도 않았다. 마악도 이제나 저제나 끝이겠지하고 포박스럽게. 전더든 무 쥘은 것들마저 들어 닥쳐는 돌떼이에 쓸려 떠내려가고 말았을 것이었다. 푸른 쪽쪽집의 위치는 무서운속도의 격투가 흐르는 심장부였다. 비는 하루낮 하룻밤을 계속해서 내렸다.

비가 끝이고 집집이 마치 진쟁터처럼 타는 횃불아래 깊이 무릎꿇어 으로는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렛질을 바레고 치을것은 치웠다. 그후 맞빗이 지나서야 그들은 인제그 그들자신이 사뭇 울어난 바닥위에 세파란 계집들의 주막 얘기를 생각해 냈다.

『쯔,쯔,젊은 것들이 악착스럽게 서럽 참다는듯 혀를 차는 경상도 아주머니 겉에는 어쩐지 경경히 아쉬운 모습으로 평양 평강노파가 빙하니 그 쪽의 자리를 지켜 보고 있었다.

논밭 흙어미와 사는 김서방은 오늘도 만장 취장 되어 비틀거리면서 전녀집 개바위의 어제를 잡고 중얼거리는만속에서인말이에서 있었다.

『어허 고것과 다툰게 어제께 같은데—』

『고것들 얌랑 얌랑하는 엉덩이를 꼬집었드니 발끈해서 대들지 않겠나—』

『어 그래 네를이 워간대 도도하게 구는지야, 그래 이랬었지』

『고것들 하는 말 들었나?』

『된 빌주에 다 보였나, 나두 평양 성부자 말이라우.』

『그게 글세이말게 딱쏘고는 드러가 버렸지.』

이런 아무런 연관도 없는 남남의 말이 뭉기는 것은 언젠가 그 흙방을 빌하니 바라보고 서있던 평양 평강 노파와 지금대로 빈대떡집 걸은 시악씨와 사이에 무슨 떼지못한 얘기처럼 들려왔다. (R. 2)

⑥

Sun glasses

비타리아노·부씨리(伊)

이것은 光線을 効果的으로 이용한 작품이다. 이태리 『마지오무』호수가에 해가질 무렵 後光을 받고 있는 모델의 얼굴을 렌즈로 포착하였다. 따라서 모델의 얼굴과 선그라스는 암색이며 라 가려는지 로타리에서 충성거리며 부비적대는 사람들.

마지고 불것같으면 —실상은 너의 잘못도 아니고

나의 잘못도 아니다

한국의 경제학자의 말을 빌린다면 너와 나의 나라

우리의 나라 한국 코리아는

—가난하기때문에 가난한 것이다 너와 나와 우리를 저주하는 소리 마냥 죽어야하고 죽어야하는소리 아무리 비껴서도

이젠 비켜 설것 조차 없구나,

막다른 골목에서 오직 세상은나무의 무리처럼 조각난 것이여나 아직 못다한 속말일랑 주사를 맞는퍼에 밀어놓자.

(E2)

變更線近處

(꽁뜨) 강 문 자

국망산(國亡山)과 캐틀고개 사이에 큰 시내가 흐르고 물이 고이기 못한 내스물레는 물자갈이 사뭇 물어나 연암(鉛岩)천 곳에 『미 군과고 분답』이 주둔하고 있었다.

일찍기 전쟁으로 황폐됐던 이곳에 차츰 토방(土房)에서 가난한 피난민들과 트내기꿀이 모여 들고, 도상술(賭術)에 밝은 패들은 그네들대로 미군부대 근처로 모여들어서 아닌 황무지에 캐바레까지 생긴 알궂은 번이지(蟹異地)가 이곳 3·8선 북쪽의 변경선 근처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캐멜한 이름 역시 낙타등같다는 고개를 의미합것은 미군들이 계집을 껴대로 붙여준 이름인듯 하다.

작년 한여름을 얼마 보냈을 무렵 이곳 계곡을 따라 흐르는 시내에 새파란 가시내 둘이 찾아 들었다. 에당초에 무슨 꿍꿍이 수작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되 이 두 새파란 계집애들은 인부를 부리고하여 부산스런 몇일만에 파란 계꾀까지 벌인일그만 하꼬방 한채를 출렸다. 이튿날 을 둘러 온갖 잡패들은 제멋대로 고네들에 찬물이 지껴대대고 있었다.

『자 새파란 것들이 미군들 코앞에다 저집 세우고 무얼 작정인고』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듯한 홀을 보는 여편네는 경상도 아주말내였고

『쌀닥지게 배를 참이겠다.』 하던이는 빈대떡집 만사불통인 경안도노파 평강댁이었다.

그녀들은 이런 소리를 들었는지, 듣고도 못들은 척 하는지, 그날 그날 술독을 나르고 얼굴에 다정한 화장들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를 빈대떡집 노파의 무경비숯한 말이 자주 들리는 것으로 보아 저쪽 샛라한 계집애들의 짚의 술군들이 퍼질린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

그녀들은 미군들도 불러 들였다. 그이나 그것은 밤에만 그런 모양이었다. 그런데 누구의 입에서인지 그 나들은 특잔은 형리잔인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이 괴상한 킴멩주시(金名株式)주박은 그녀들의 긴한 밤비꽃 때문에 이른 아침의 해장국은 먼이 먹을수도 끓이지도 않았다.

봄을 겹이 끝떨서 이 혼성 주막은 더 번창해 지는것 같았다. 계법 돈콘이나 풍았을 뱉때 그런 것들도 없이 주막내부를 단장한다든지해서 장사를 썩 잘하는 편이었다.

허지만 저지 아무도 그녀들의 고향이며 바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거나한 술군들이 간혹

『그지 시악서 집이라면 좋잖갑으요.』

이것도 미궁으로 이고는 세써들에게서 달리 무엇을 알아볼 도리가 없었다. 그저 셋라인것들 집으로 가세—하던 술군들은 다들 알아차리고는 우루루 웃을을 뻐뜨리며 몰려가곤 했다.

평양 노파에게는 이 몇달치럼 뒤숭숭한 때는 없었다.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을뿐더러, 자신의 주위가 더럽이 싸늘한 느낌이 들었다. 죽은 남편과 어린제로 두고온 자식들이 어줍지럽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어위게하는 일은 일찌기 없었다. 〈내 말년을도 저것들만한 나이에 이렇거니〉하는 까무라칠듯한 심사였다.

그러니까 음(陰) 7월 초순쯤 한날 저녁무터 퍼붓기 시작한 폭우는 잠시도 쉬지않고 쏟아졌다. 몇시간 사이에 냇물이 넘치서 양쪽 산기슭과 고지에 위치한 고분단자리를 두고는 천지가 물바다로 변해 버렸다. 마을에도 물이 들기 시작하였다. 아우성과 뇌동속에서 아무도 다른 사람을 돌볼 여가가 없었다. 먹을것 입을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산비탈을 타고 기어오르는 도리밖에 없었다.

그때도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은 산비탈이나 큰바위를 의지할 수 있었으나 그들이 억세 격류밑에서 구걸구걸 들 구는 소리와 함께 한체 한체 집이 물에 쌓이는 광경을 보고 있을 즈음, 새파란 꾸밈은 시악씨들의 판자집은 흔적도 없이 떠내려 가고 보이지도 않았다. 마악도 이제나 저제나 끝이겠지하고 포박스럽게. 전더든 무 쥘은 것들마저 들어 닥쳐는 돌떼이에 쓸려 떠내려가고 말았을 것이었다. 푸른 쪽쪽집의 위치는 무서운속도의 격투가 흐르는 심장부였다. 비는 하루낮 하룻밤을 계속해서 내렸다.

비가 끝이고 집집이 마치 진쟁터처럼 타는 횃불아래 깊이 무릎꿇어 으로는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렛질을 바레고 치을것은 치웠다. 그후 맞빗이 지나서야 그들은 인제그 그들자신이 사뭇 울어난 바닥위에 세파란 계집들의 주막 얘기를 생각해 냈다.

『쯔,쯔,젊은 것들이 악착스럽게 서럽 참다는듯 혀를 차는 경상도 아주머니 겉에는 어쩐지 경경히 아쉬운 모습으로 평양 평강노파가 빙하니 그 쪽의 자리를 지켜 보고 있었다.

논밭 흙어미와 사는 김서방은 오늘도 만장 취장 되어 비틀거리면서 전녀집 개바위의 어제를 잡고 중얼거리는만속에서인말이에서 있었다.

『어허 고것과 다툰게 어제께 같은데—』

『고것들 얌랑 얌랑하는 엉덩이를 꼬집었드니 발끈해서 대들지 않겠나—』

『어 그래 네를이 워간대 도도하게 구는지야, 그래 이랬었지』

『고것들 하는 말 들었나?』

『된 빌주에 다 보였나, 나두 평양 성부자 말이라우.』

『그게 글세이말게 딱쏘고는 드러가 버렸지.』

이런 아무런 연관도 없는 남남의 말이 뭉기는 것은 언젠가 그 흙방을 빌하니 바라보고 서있던 평양 평강노파와 지금대로 빈대떡집 걸은 시악씨와 사이에 무슨 떼지못한 얘기처럼 들려왔다. (R. 2)

⑥

Sun glasses

비타리아노·부씨리(伊)

이것은 光線을 効果的으로 이용한 작품이다. 이태리 『마지오무』호수가에 해가질 무렵 後光을 받고 있는 모델의 얼굴을 렌즈로 포착하였다. 따라서 모델의 얼굴과 선그라스는 암색

여름 낮

박 청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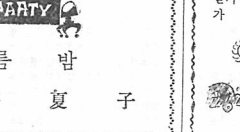
파리한마리천정에서비실거리면정녕이렇게숨막히는
하늘과지구의슬결사이로떠나간나그네는지금쯤어디있
을가마음이간다

얼핀당신의나이와나의나이가百년은족히넘게될것이
라고생각은되지만그라디오스분꽃따리아겉으로잗못돋
아난無色이성의강치럼빛나간生活의위치에서나와당신
의다른전망대에서바라보는거리만큼멀리막아오는不信
의눈초리여

흙사빈잠한도시의네거리에서겉잠아들아드는조용한
발걸음따라그림자가솟어오면그리고그림자가리서로부
비고지나가면지나간사람들의얼굴은다아는이갚고사람
은답아도나하나로허우적허우적걷는다

사람이살아간다는것은웃을수있는시간과웃을수없는
시간과아무것도아닌시간을정리하는고통뿐이라면

여름낮방안에벨링누워정그린포장은어디에숨하는고
통의말림이야파리한마리휘돌다가로위에앉는다주거나
받거나바라지않는파리한마리나는무엇을닮고있는것일
가 (E 1)



여 름 밤

權 夏 子

대기를 꺼고 도는 호끗한 바람이 껍질한 숲속에 몇 일들을 흔들고 지나간다.

○ ○

쩌는 듯한 모진 햇살에도 시들어 지지 않고 청록색을 자랑하듯 꿋꿋하게서 있는 그들의 모습이 한층 부럽기만 하다

○ ○

밤은 깊은데 주위로 감도는 그윽한 내음새……

푸른 은하수 그리고 물긴달 청초한 웃음을 머금은체 섰은 보랏빛이 된 커튼 위에서 춤을 춘다.

○ ○

꿈의 여신과 속삭이는 한 소녀의 무랑 위에 천곳이 수식되고

별……

시계가 한점을 울린다.

○ ○

신비스런 미소는 어느듯 살아지고

긴장한 초조의 빛— 창백한 얼굴에 하이얀 수심이 떠죄 한다.

○ ○

밤은 적 깊고 달도 그리고 별도 살아지고 여름밤이 무더워 잠은 오지 않는다. (F 2)

HENS' PARTY

여 름 밤

權 夏 子

대기를 꺼고 도는 호끗한 바람이 껍질한 숲속에 몇 일들을 흔들고 지나간다.

○ ○

쩌는 듯한 모진 햇살에도 시들어 지지 않고 청록색을 자랑하듯 꿋꿋하게서 있는 그들의 모습이 한층 부럽기만 하다

○ ○

밤은 깊은데 주위로 감도는 그윽한 내음새……

푸른 은하수 그리고 물긴달 청초한 웃음을 머금은체 섰은 보랏빛이 된 커튼 위에서 춤을 춘다.

○ ○

꿈의 여신과 속삭이는 한 소녀의 무랑 위에 천곳이 수식되고

별……

시계가 한점을 울린다.

○ ○

신비스런 미소는 어느듯 살아지고

긴장한 초조의 빛— 창백한 얼굴에 하이얀 수심이 떠죄 한다.

○ ○

밤은 적 깊고 달도 그리고 별도 살아지고 여름밤이 무더워 잠은 오지 않는다. (F 2)

알 림

앞으로는 학보교부권을 가지고 학보를 타게 되므로 학보 교부권을 분실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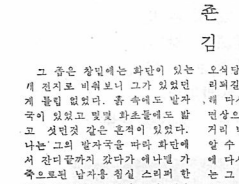
외 대 학 보 사

(3면에서)

英國의 두체로 큰 「알부미늄」生産業體인 「테이놀즈」合社는 最近에 英國「알부미늄」合社의 株 47%를 買入하였으며 現在 英國의「알부미늄」製造業 生産能力의 41%以上을 占하는 合社들의 株를 가지고있다.

그合社의 報告書에 依하면 英國의 「알부미늄」工業은 海外에서 成長의 刺的 機會를 가졌다. 「테이놀즈」合社는 英國에만도 4.900萬弗의 投資를 했고 其他外國에 1億千9百萬圓의 資金을 所有하고 있다.

새로운 歐洲共同市場안에 生産施設을 갖기 爲하여「마드·콘슨」合社는 佛蘭西의 한 製藥會社의 管理權을 獲得하였다. 同合社는 스위스에 從屬合社를 設立하였고 그合社의 株主들에게 다음과 같은 確信을 주었다. 「世界를 舞臺로 事業을 적극적으로 擴張시키는것이 어려운 合社의 政策입니다.」



치로 <2>

존 쉬버 원작

김 창 우 번역

그 좋은 창밖에는 화단이 있는데 전지로 비좌로니 그가 있었던게 틀림 없었다. 좁 속에도 말자국이 있었고 빛깔 화초들에도 밟고 신던것 같은 흔적이 있었다. 나는 그의 발자국을 따라 화단에서 잔디밭까지 갔다가 에나멜 가죽으로된 남자용 침실 스리퍼 한짝을 발견했다 스리퍼는 다 해지지 않아서 이런 노인이 신던 것인지도 모르리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보면 더러다 보면 더러이 누군가 이곳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스리퍼를 주워집 셋나무 울타리 넘어 바스토우에 되버림이 쪽으로 집이 던지고 집으로 들어와 전등을 끄고 이층으로 올라 갔다.

다음날 나는 한 주 빈 경찰에 전화를 걸가 생각했지만 걸지를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날밤 오래 서 모두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던 뻐이므로 알만 했다. 원래는 뻐타 공격을 한다고 한 노릇이었는데 스캔리는 마치 내가 의식적으로 무등산 가격을 속내려는것 처럼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어 다섯개의 경찰관으로는 인원이 부족해서 격은 보수로 파종한 일을 맡고있는 형편이니 우리집 근처에 감시병을 세워 놓고 싶으면 다음 공청회 집회때 다른 사람들을 움직여서 경찰력을 증강하도록 하기 전에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는 막절하게 서도 있으려고 나중엔 아내와 애들 얘기를 했지만 전화실을 나오자 실수를 했다는 느낌이었다.

그날밤은 일찍 바루 주간에 되가가 쏟아지더니 아침까지 계속되었다. 그런데 그날은 폭우 때문에 집에서 공부 못했는지 그를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그러나 이튿날 그는 다시 왔다. 세시쯤 해서 나타났다가 한시간쯤 후에 떠나는 소리를 들었지만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는 결 귀찮지만 무대한 존재일 뿐만아니라 내가 그가 누구보다는 것을 알고 있 이를만이라도 알았다면 그는 나를 다시 찾 왔지키지 못할 것이고 나는 나의 치료 스케줄을 단심하고 계속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때 대한 의심을 가슴에 품은체 이층으로 올라갔다. 그가 이곳에서 왔다는것은 거의 분명했다. 나는 친구나 이웃 사람들 중 그 때 여름에 경신 이상이 있는 친척을 데리고 있는이가 혹시 없나 생각하면서 다음날 아침 역에서 주택용 휘발 공장수를 비집고 걸으면서 특히 밥인이 전반한 좀 「색다른」 사람이 없나 살펴 보았다. 어딥못이 본 얼굴이지만 알아 볼것만 같았다. 마로 이때 그 얼굴이 나타났다. 그것도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직하고 음침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회미하게 나마 바람 한구석에 남아 있던 희죽은 내가 그를 알아 봤다는것을 알았을 때 그의 표정으로 깨끗이 사라졌다. 공포와 피작감에 시로 잡힌듯한 표정이었다. 그때게 말을 걸려고 주랫을 돌아 보았다. 그러게 그가 시작했다

"마—스톤씨 당신이 밤에 우리 집 창문으로 더러다 보는것좋 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단 말이오" "그렇지만 마누라 꽃밭을 궁게 놓는건 좀 삼가 주었으면 좋겠소" 큰 소리로 떠들어 대 어쩔줄을 모르게 할 만이었다. 그런데 그만 우뚝 서고 말았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아내와 말이 그 옆에 서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를 위를 지나쳐 대합실 한모퉁이 까지 걸어와서 이를 가죽을 돌아다 보았다.

그런데 마—스톤씨의 표정이나 태도에는 이미하나 부자연스러운 데가 없었다. 하기야 내가 그저 뚜렷한 기색을 알아 차렸을 테지만 그는 줄기가 좀 넓은 키와고 한쌍 튼튼 쉬어 있었다. 그런데 그는 「색다른」 사람이 아니었다.

나로 하—비트 마—스톤이었다. 그는 찰리윌리우·로—드에 관한 이야기를 내 쯤을 친구들을 생각하다보면 출렁이는 물살이작달쉬들것만 잔아진다 위분을 화시도—정말 「生活」이라는. 그놈다도 「내가 存在한다」는 사실이 이느 철인의 멋진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할 수록 뼈속으로 배속으로 스미어 전율하는 고비가 있다는, 그리니까 다시는 「생활」이라든가 「存在」라는 말은 켜대지도 말자는 주넘을 전지하게 반하는—친구의 말에 더서 한번 나도 나를 살펴본다.

사람이 아름주 있다고 막연히 느끼긴 했어도 내가 수술까지하여 입원을 하리라고는 생각한적도 없지않았던가? 그만큼 나의 내부 구조는 나에게 아낌고 좋은것들만으로 차있었고 갖춰 빈자리가 있어서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리라는 타산이 있을때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던가. 멀끔히 친정을 바라보던 친구가 「야 쥬스 먹어라」하는 다정한 음성에 돌아다 보니 이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럽졸 마셔야겠다고, 경쟁이지 축제지이 아니면 경신적으로 켜겨지 때문에 대부분이 病에 걸려 있는 상태로 느껴진다. 向體的이어서 회부이 나타나는 환자는 乎衝室의 時間과 注射를 맞는 시간이 필요하겠으나 여주지일 번힌 心的인 병자들은 어느 종류의 乎衝室에서 혹은 어떤 주사를 맞아야 그 힘힌 정신의 병이 풀리게 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원한 무럽졸 마시어 가슴에 놀린 답답한 무게를 덜어 줄것인가, 덜물을 피워도 좋다는 희사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으므로 나는 답배를 붙여 물고 친구가 불어주는 불빛을 응시하자니 이러한 법원호실의 절차를 거쳐 가비린 노천평의 「나에게 해폰을」이라는 詩句가 도박 마냥 떠올랐다.

하루는 도하루를 삼키고

내일로 내일로

내가 걸어가는게 아니오

밀려가오

구정물을 먹었다 토했다

허우적 댈은 익사를 하기가 억울해서요.

악이 앙귀비꽃마냥 피어 오르는 마을

저마다 모종을 못내서 하는판에

자식을 나무랄게 못되오

울타리안에서 기를 수는 없지않소?

말도 안나오고

눈 감아버리고 싶은 날이었오

꿀대신 무서운 害虫이 얼룬거리는데

좋은말 해줄 친구도 안보이고!

할머니 내게 「해폰」을 좀 주시지 없을 할퀴있는 아무거고

곧 질식하게 생겼오!

참말로 이번 여름은 색다른 모습으로 닦아온것이다. 방바닥에 놓인 사파랑 수박, 목숨아 배하리를 곧고리비 바라 보면서 화장품들을 생각하는것보다 인체의 구조가 한결같이 에리하고 묘하게 구성되어 있다는것을 생각할때 生理가 저절로 두려워진다. 헤로—드 짠 돌아가듯 넓은 地球上에서 험하고 험한 생활을 빌빌 끌어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할퀴있는 무이고 있어야 할텐데, 수박이 꾸깃꾸깃하고 향하여 버퍼히 헌기를 내 쯤을 친구들을 생각하다보면 출렁이는 물살이작달쉬들것만 잔아진다 위분을화시도—정말 「生活」이라는. 그놈다도 「내가 存在한다」는 사실이 이느 철인의 멋진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할 수록 뼈속으로 배속으로 스미어 전율하는 고비가 있다는, 그리니까 다시는 「생활」이라든가 「存在」라는 말은 켜대지도 말자는 주넘을 전지하게 반하는—친구의 말에 더서 한번 나도 나를 살펴본다.

사람이 아름주 있다고 막연히 느끼긴 했어도 내가 수술까지하여 입원을 하리라고는 생각한적도 없지않았던가? 그만큼 나의 내부 구조는 나에게 아낌고 좋은것들만으로 차있었고 갖춰 빈자리가 있어서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리라는 타산이 있을때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던가. 멀끔히 친정을 바라보던 친구가 「야 쥬스 먹어라」하는 다정한 음성에 돌아다 보니 이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럽졸 마셔야겠다고, 경쟁이지 축제지이 아니면 경신적으로 켜겨지 때문에 대부분이 病에 걸려 있는 상태로 느껴진다. 向體的이어서 회부이 나타나는 환자는 乎衝室의 時間과 注射를 맞는 시간이 필요하겠으나 여주지일 번힌 心的인 병자들은 어느 종류의 乎衝室에서 혹은 어떤 주사를 맞아야 그 힘힌 정신의 병이 풀리게 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원한 무럽졸 마시어 가슴에 놀린 답답한 무게를 덜어 줄것인가, 덜물을 피워도 좋다는 희사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으므로 나는 답배를 붙여 물고 친구가 불어주는 불빛을 응시하자니 이러한 법원호실의 절차를 거쳐 가비린 노천평의 「나에게 해폰을」이라는 詩句가 도박 마냥 떠올랐다.

하루는 도하루를 삼키고

내일로 내일로

내가 걸어가는게 아니오

밀려가오

구정물을 먹었다 토했다

허우적 댈은 익사를 하기가 억울해서요.

악이 앙귀비꽃마냥 피어 오르는 마을

저마다 모종을 못내서 하는판에

자식을 나무랄게 못되오

울타리안에서 기를 수는 없지않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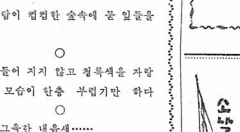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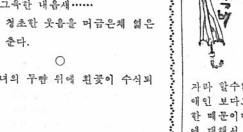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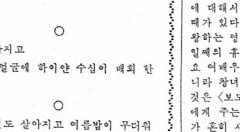
말도 안나오고

눈 감아버리고 싶은 날이었오

꿀대신 무서운 害虫이 얼룬거리는데

좋은말 해줄 친구도 안보이고!

할머니 내게 「해폰」을 좀 주시지 없을 할퀴있는 아무거고

곧 질식하게 생겼오!

참말로 이번 여름은 색다른 모습으로 닦아온것이다. 방바닥에 놓인 사파랑 수박, 목숨아 배하리를 곧고리비 바라 보면서 화장품들을 생각하는것보다 인체의 구조가 한결같이 에리하고 묘하게 구성되어 있다는것을 생각할때 生理가 저절로 두려워진다. 헤로—드 짠 돌아가듯 넓은 地球上에서 험하고 험한 생활을 빌빌 끌어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할퀴있는 무이고 있어야 할텐데, 수박이 꾸깃꾸깃하고